

# 벤츠 한정판 'GLE 450 4매틱' 39대만 팝니다

### 부분 변경으로 2가지 색상 적용 SUV 역동성·날렵함 극대화 첨단 주행보조 시스템·오프로드 주행모드·투명 보닛 등 탑재

'때깔'이 다르다. 메르세데스-벤츠가 첫 선보인 색상이 적용된 '온라인 스페셜' 9월 모델 'GLE 450 4매틱' 얘기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가 창립 20주년 온라인 스페셜 9월 모델로 특별하고 고급스러운 내외관 색상 조합이 적용된 '메르세데스-벤츠 GLE 450 4매틱 온라인 스페셜'을 20일부터 39대 한정 판매한다고 18일 밝혔다.

GLE 450 4매틱 온라인 스페셜은 지난달 국내 인도가 시작된 4세대 부분변경 모델 더 뉴 GLE의 온라인 한정판 모델이다.

부분변경을 통해 GLE에서 새롭게 선보인 내·외장 색상과 외장 디자인 옵션, 실용적인 편의사양이 추가돼 특별함을 더했다.

무엇보다 이번 온라인 스페셜 모델은 부분변경을 통해 처음 소개된 2가지 색상이 적용됐다.

우선 '마누팩투어 알파인 그레이 솔리드' 색상 모델은 카탈라나 베이지 및 검은색의 두 색상이 적용됐다. 이를 통해 클래식하면서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제공한다. 이는 벤츠의 설명이다.

또 차별하면서 세련미를 강조한 '소달라이트 블루' 색상 모델은 마키아도 베이지와 검은색 색상의 인테리어로 깔끔하면서 넓은 공간감을 자랑한다. 두 모델은 각각 20대, 19대 한정 수량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두 모델 모두 외관에 공통적으로 나이트 패키지가 기본 적용됐다. 라디에이터 그릴과 루브르, AMG 프론트 에어프린 및 범퍼 공기 흡입구, 사이드 미러 하우징, 윈도우라인 및 벨트라인 트림 스트립, 루프레일, AMG 리어 에어프린 및 디퓨저 등이

모두 검은 색상으로 마감돼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의 역동적이고 날렵함을 극대화했다. 또 이번 부분변경 모델부터 신규 도입된 21인치 AMG 5 트윈 스포크 경량 알루미늄을 탑재해 활동적인 분위기를 더했다.

실내에는 '마누팩투어 하이글로스 블랙 플로잉 라인 피아노 라커' 트림이 적용됐다. 이 트림은 메르세데스-마이바흐 GLS에서 선보였던 인테리어 디자인 요소로, 고풍택 검은색에 흰색 라인으로 포인트를 줘 고급스러운 실내 분위기를 자아낸다.

이에 더해 뒷좌석에는 '뒷좌석 전동식 사이드 윈도우 선블라인드'가 탑재됐다. 도어 패널의 스위치로 편리하게 조작 가능하고 선블라인드를 내리면 실내 조도가 내려가 아늑함을 준다. 가족 단위의 고객들에게 매력적인 요소가 될 것이라고 벤츠는 기대했다.

한편 더 뉴 GLE는 독보적인 쿠파 감성을 자랑하는 '더 뉴 GLE 쿠파', 고성능 모델인 '더 뉴 메르세데스-AMG GLE 53'으로 라인업이 구성돼 고객의 선택지를 넓혔다.

이밖에 전 라인업에는 벤츠의 최첨단 주행보조 시스템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플러스'와 최신 텔레매틱스 NTG7이 탑재된 '2세대 MBUX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오프로드 주행모드, 오프로드 주행 모드에서 360도 카메라와 연동해 전면부 아래 시야 확보에 도움을 주는 '투명 보닛', '에너지징 패키지' 등 다양한 안전·편의사양이 기본 탑재됐다. 판매가격은 '마누팩투어 알파인 그레이 솔리드'가 1억4435만원, '소달라이트 블루'는 1억3800만원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GLE 450 4MATIC '소달라이트 블루'



GLE 450 4MATIC 실내



GLE 450 4MATIC 카탈라나 베이지

## 토요타 프리미엄 미니밴 '알파드' 출시



토요타의 프리미엄 미니밴 '알파드'가 공식 출시됐다.

토요타코리아는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4번째 진동화 모델인 프리미엄 미니밴 '알파드' (ALPHARD)를 공식 출시하고 판매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알파드는 2002년 출시 이후 '쾌적한 이동의 행복'을 개발컨셉트로 지난 6월 글로벌 월드 프리미어를 통해 4세대 모델을 선보였다.

탑승객의 편의를 극대화한 공간과 장시간에도 피로감이 적은 안락한 승차감, 운전자와 탑승객 모두 만족시키는 다양한 편의사양 등을 탑재했다는 게 토요타의 설명이다.

알파드는 전통적인 원박스 미니밴이 가지고 있는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강렬한 인상을 부여하는 전면부와 역동적인 느낌의 측면 보디 라인을 더해 기존의 틀을 넘어서 세련된 디자인을 보여준다.

전면부는 입체적 조형의 블랙 글로시 메시 그릴과 다이내믹함이 강조된 트리플 LED 헤드램프가 적용, 측면부는 역동적인 느낌의 라인과 일직선으로 이어진 크롬 가니쉬를 통해 알파드만의 역동적인 모습을 담았다.

인테리어는 부드러운 가죽으로 마감돼 안락함과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운전석에는 전

연가속 소재와 우드패턴 가니쉬를 적용했고, 나파 가죽 시트의 열선, 통풍, 운전석 메모리 기능도 더했다.

2열 공간은 다양한 편의기능을 손쉽게 조작하면서 뛰어난 착좌감을 자랑하는 이그제큐티브 라운지 시트가 탑재됐다. 이그제큐티브 라운지 시트에는 토요타 최초로 등받이와 암레스트 부분에 저반발 메모리 폼 소재를 도입하여 몸으로 전달되는 진동을 최소화하도록 만들어졌다. 암레스트에 부착된 시트 조작 버튼으로 시트의 자세 및 파워 슬라이드 조작이 직관적으로 가능한 것도 특징이다.

이외 ▲전동 다리 받침 ▲공기압을 이용한 지압 기능 ▲리클라이닝 기능 ▲암레스트 부분에 내재된 폴딩 테이블 ▲2열 에어 커튼 등이 적용됐다. 알파드는 2.5ℓ 하이브리드(HEV) 파워트레인을 기반으로 연비 효율과 정속성도 극대화했다. 총 출력 250마력을 발휘하며,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복합연비 기준 13.5km/ℓ를 기록했다. 사륜구동 E-Four 시스템이 탑재돼 노면 상황에 따라 전·후륜 모터를 활용, 빗길이나 거친 노면에서의 주행 안정성도 높였다.

토요타 알파드는 2.5ℓ 하이브리드 단일 파워트레인으로 판매되며, 가격은 9920만원(개발소비세 5%)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

## 제네시스, 글로벌 판매 100만대 돌파

제네시스 브랜드가 글로벌 누적판매 100만대를 넘어섰다.

제네시스는 브랜드 출범 이후 올해 8월까지 국내 69만177대, 해외 31만8627대 등 세계시장에서 총 100만8804대를 판매했다고 18일 밝혔다.

2015년 11월 국내 최초의 고급차 브랜드로 탄생한 지 7년 10개월, 2021년 5월 누적 판매 50만

대를 넘어선 지 2년 3개월 만에 이룬 성과다.

제네시스는 2015년 G90(당시 국내 차명 EQ900)을 출시하며 그 해 384대를 판매한 것을 시작으로 G70-G80과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인 GV70-GV80 등을 연이어 선보이며 판매량을 늘렸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부산엑스포 유치 기원 '현대 아트카' 뉴욕 질주



부산엑스포를 알리는 현대차그룹 아트카 차량이 미국 뉴욕 주요 지역을 순회하면서 부산을 알린다. 왼쪽부터 아이오닉 6, 제네시스 G80 전동화 모델, 아이오닉 5. <현대차 제공>

### 현대차, UN 총회 고위급 주간에 홍보 활동...아이오닉5 등 3종 선정

현대자동차그룹이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을 위해 특별 제작한 '아트카'가 미국 뉴욕 도심을 달린다.

현대차그룹은 18일 미국 뉴욕에서 시작되는 제78차 유엔(UN) 총회 고위급 주간에 K-컬처 아트스트와 협업한 아트카 20대를 활용해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을 펼친다고 이날 밝혔다.

유엔 총회 고위급 주간에는 193개 유엔 회원국 정상과 총리, 장관 등 각국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 글로벌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일반토의(General Debate)를 비롯해 지속가능발전목표 정상

회의(SDG Summit) 등이 열린다.

오는 11월 말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을 앞둔 가운데 현대차그룹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이번 UN 총회에서 부산의 비전과 경쟁력을 널리 알릴 기회로 유치전에 힘을 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대차그룹은 부산엑스포의 차별화 포인트인 '친환경 기술 적용을 통한 탄소중립 엑스포'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제네시스 G80 전동화 모델 등 전기차 3종을 아트카 차량으로 선정했다.

현대차그룹은 유엔 본부 인근 및 뉴욕의 주요 명

소 주변에서 아트카를 운행하면서 총회 참석 등을 위해 모인 각국 주요 인사들은 비롯해 뉴욕을 찾은 전 세계 관광객을 대상으로 부산의 매력과 세계박람회 개최 의지를 알릴 방침이다.

또 뉴욕 맨해튼의 문화 예술 중심지인 미드타운 디스트릭트에 위치한 제네시스 하우스와 타임스 스퀘어 광장 등에 아트카를 전시, 부산 유치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앞서 현대차그룹 아트카 차량은 지난 5-7일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9-10일 G20 정상회의가 개최된 인도 뉴델리 등에서도 주요 지역을 순회하며 박람회 유치를 홍보한 바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유럽 車시장 대세는 '친환경차'

### 내연기관차 비중 사상 첫 절반이하로...디젤 엔진 기피·효율성 고려

가솔린·디젤차의 분고장인 유럽에서 내연기관차의 판매 비중이 처음으로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의 올해 1~7월 연료별 자동차 판매 현황에 따르면 가솔린·디젤 내연기관차 판매량은 380만4115대로, 전체 자동차 판매량 761만707대의 49.98%를 차지했다.

내연기관차 판매 비중은 분기별로 지난해 4분기에 45.2%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50% 이하로 떨어졌지만 이후 50%대를 회복했다. 이에 따라 연간 누적적으로 판매 비중이 50% 아래로 떨어진 것은

올해 1~7월이 처음이다.

이와 같은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지면 올해는 유럽 자동차 시장 역사상 처음으로 내연기관차가 하이브리드, 전기차 등 친환경차에 시장 주도권을 뺏긴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내연기관차 인기 하락은 디젤 엔진 기피 현상에서 비롯된 바가 크다.

디젤차는 지난해 연간 163만9000여대가 팔리며 전년 대비 20.9% 판매가 감소했다.

또 올해 1~7월 전체 유럽 자동차 판매는 작년 동기 대비 17.5% 증가했지만, 디젤차 판매는

3.8% 줄었다. 그 결과 판매 비중은 역대 최저 수준인 12.7%까지 떨어졌다.

디젤 엔진 기피와 더불어 도로 요건과 효율성 등을 고려해 친환경차를 찾는 유럽 소비자 성향도 이러한 경향에 힘을 보탰다.

올해 들어 7월까지 유럽에서 팔린 하이브리드차는 196만4000여대로 27.9% 증가했다. 판매 비중도 25.8%로 가솔린차(37.2%)에 이어 2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전기차는 2020년까지만 해도 짧은 주행거리와 충전 인프라 미비로 판매 비중이 5% 수준에 불과했지만, 2021년 63.4%, 2022년 29.3%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올해 1~7월 판매 점유율이 14.3%까지 뛰어올랐다. 올해 누적 판매량도 108만8000대로 47.2% 증가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연합뉴스